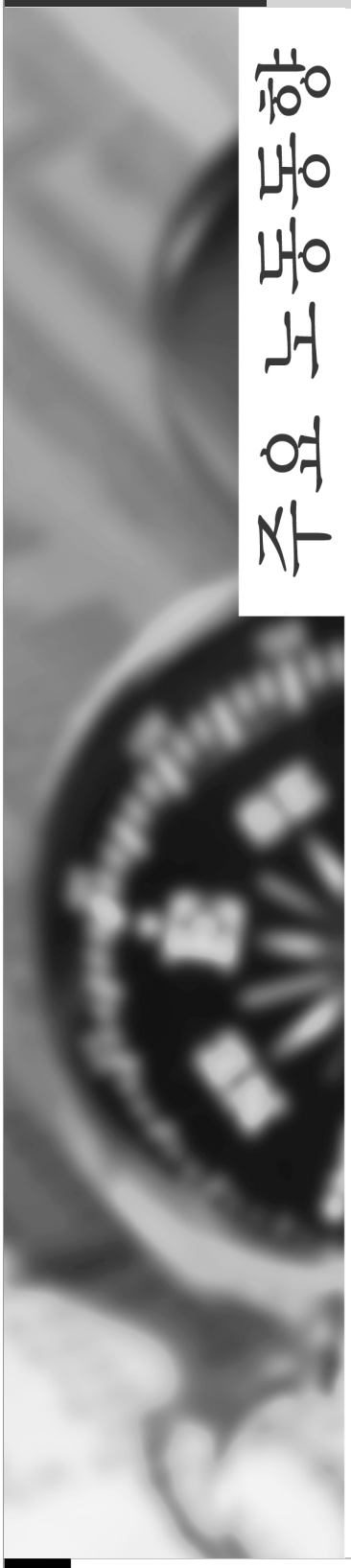

주요 노동동향

노사관계 동향

노사분규 동향

◈ 근로손실일수, 전년동기보다 큰 폭 감소

○ 2007년 12월 25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보다 감소함(표 1 참조).

– 분규발생건수는 113건으로 전년동기(138건)에 비해 감소하였으며, 근로손실일수도 523,465일로 전년동기(1,197,075일)대비 56.3% 감소함.

〈표 1〉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

(단위 : 개소, 일)

	2006. 12. 25	2007. 12. 25
노사분규발생건수(개소)	138	113
근로손실일수(일)	1,197,075	523,465

주 :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.
자료 : 노동부.

노동정책 동향

◈ 노동부,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개정 -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

○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의 개정내용은 사업

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부과, 정부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교재 등 보급의무,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상향조정(2%→3%, 2009년 1월 1일 시행)이며,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.

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

◈ 경총,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우려 표명

○ 경총은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노동시장, 특히 민간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

-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57~60세로 민간부문에 비해 훨씬 긴 편이며, 외환위기 이후 민간부문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온 것과는 달리 공공부문은 오히려 인원을 대폭 늘려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였으므로 확대된 정부조직을 줄이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

◈ 한국노총, 「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(안)」은 사회보험 서비스의 질적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

○ 한국노총은 분산된 보험료 징수계를 일원화하여 관리운영체계를 효율화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진행과정에서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보험혜택이 축소되었듯이 4대 보험징수율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사회보험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을 우려함.

- 직장가입자에 대한 업무표준화 등 업무통합 및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 기관간의 정보연계사업 우선 추진, 소득파악률 및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,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사회보험 통합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도록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촉구함.

◈ 경총, 새 정부의 노사관계 우선과제는 '법과 원칙의 확립' - 2008년 노사관계전망조사 결과 발표

○ 경총은 300인 이상 19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'2008년 노사관계전망조사'를 실시한 결과 2008년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부문(51%)으로 나타나 「비정규직법」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가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최대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이밖에도 임금인상, 정년보장 및 고용안정 등 근로조건 개선문제가 임단협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나타났으며, 산별교섭의 가장 큰 문제는 다중교섭·다중파업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피해누적으로 조사됨.